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1.12.1

미 증시, 오미크론 우려 완화 불구 파월 의장 발언으로 하락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남아공 신규 확진자 사례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관련 우려가 완화되며 나스닥이 한 때 상승 전환에 성공. 그러나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청문회를 통해 '일시적'이라는 인플레이션 전망에서 한발 물러서고 테이퍼링 속도를 더 높일 거라고 언급하자 낙폭 심화되며 하락. 더 나아가 코드레이 CFPB 초대 국장의 은행 감독 연준 부의장 지명 가능성이 부각되며 나타난 금융주의 하락도 미 증시 악세 요인 중 하나
- 다우 -1.86%, 나스닥 -1.55%, S&P500 -1.90%, 러셀2000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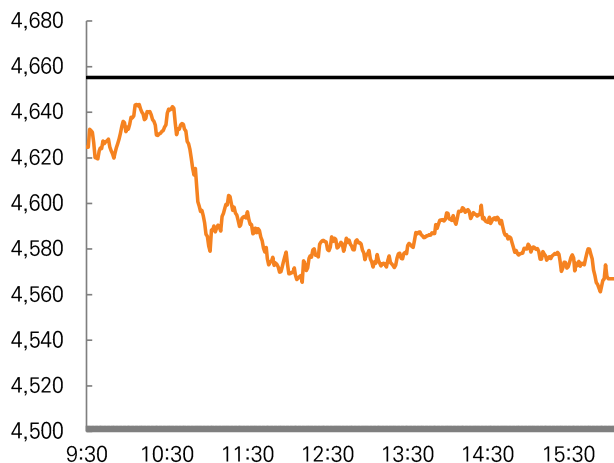
특이 종목

- 모더나(-4.36%), 바이오엔테크(-2.97%)등 백신 업종은 모더나 CEO가 기존의 백신이 오미크론 예방에 영향이 적다고 주장하자 하락했으나 추가 백신 접종 기대 심리가 부각되며 낙폭이 축소 되거나 화이자(+2.54%)와 노바백스(+7.56%)의 경우 상승. 테슬라(+0.68%)는 미 교통부 장관이 전기차를 구매해 가솔린 가격 변화를 잇으라고 주장하자 한 때 3% 가까이 상승했으나,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변동성 확대. 애플(+3.16%)은 아이패드 출하량이 서유럽에서 33% 급증했다는 소식에 상승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0.84%, MSCI 신흥 지수 ETF는 0.10%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3.25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37% 상승. KOSPI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
- 미 증시가 파월 연준의장이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는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주장하자 하락 했으나, 오미크론 관련해 남아공의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바이오엔테크 CEO가 백신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점은 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미 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보합권 출발 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특히 애플 아이패드 관련주, 전기차 업종 등에 주목해야 할 듯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839.01	-2.42	상해종합	3,563.89	+0.03
KOSDAQ	965.63	-2.69	홍콩항셍	23,475.26	-1.58
DOW	34,483.72	-1.86	베트남	1,478.44	-0.43
NASDAQ	15,537.69	-1.55	유로스톡스 50	4,063.06	-1.13
S&P 500	4,567.00	-1.90	영국	7,059.45	-0.71
캐나다	20,659.99	-2.31	독일	15,100.13	-1.18
일본	27,821.76	-1.63	프랑스	6,721.16	-0.81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①오미크론 관련 ②매파 파월 의장 ③코드레이 지명

모더나 CEO가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주장하자 관련 우려가 확산. 특히 관련 발언이 알려진 아시아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유럽 증시 또한 장 초반 유로스톡스 50지수가 2% 급락. 여기에 미국 국채 금리가 시간 외로 10년물 기준 10bp 넘게 하락하고 국제유가도 크게 하락했으며, 달러화 또한 큰 폭으로 약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변동성이 확대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진원지 중 하나였던 남아공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기존 200명 대에서 26일에는 2173명, 27일에는 2629명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 했으나, 28일에는 2308명, 29일에는 1909명으로 오히려 감소세를 기록하자 오미크론 관련 우려가 완화. 이에 힘입어 유럽 증시가 낙폭이 축소되고 미 증시는 소폭 하락하거나 나스닥은 상승 전환 성공. 물론 유럽 중심으로 확산세는 여전히 이어져 관련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지만 아시아, 유럽 시장과 달리 투자 심리의 급격한 위축은 제한

한편, 상원 은행 위원회에서 ‘인플레이션’을 주제로 파월 연준의장과 열린 재무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 여기에서 파월 연준의장은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는 전망에서 일시적이라는 부분을 제거하고 인플레 우려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 더불어 고용 참여율 부진의 큰 원인은 코로나이며 회복까지는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언급. 또한 더 높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 고용으로 돌아가는 데 큰 위험을 주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 여기에 높은 인플레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테이퍼링 속도를 더욱 높이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동조

이런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오미크론 사태로 약세를 보이던 달러화의 약세폭이 급격하게 축소되었으며 국채 금리 또한 하락폭이 축소. 주식시장은 이 발언 이후 급격하게 낙폭을 확대하는 등 변화를 보임. 물론 열린 재무장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감소될 수 있다고 말했고, 파월 의장 역시 내구재를 제외하면 인플레이션이 훨씬 낮을 것이며 내년 하반기에 진정될 것이라는 확신의 증거도 많다고 주장하는 등 일부 완화적인 언급이 있었으나 영향은 제한

여기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창설했던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초대 국장인 리처드 코드레이가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 될 것이라는 소식에 반등을 모색하던 미국 금융주가 약세를 보인 점도 미 증시 하락 요인. 특히 코드레이는 12월 말 임기가 종료되는 연준의 은행 감독 부의장인 랜들 웰스 대신이라는 점에서 규제 강화 이슈가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코드레이는 과거 주택 담보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신용카드 요율과 수수료에 대한 자료 공개를 강화하는 등 규제책을 발표 했었기 때문. 이 영향으로 웰스파고(-2.81%) 같은 은행주는 물론 마스터카드(-2.50%) 등의 하락폭이 컸음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애플, 화이자 상승 Vs. 대부분 종목 부진

웰스파고(-2.81%)는 코드레이 지명 가능성이 부각되자 규제 강화 우려로 하락. JP모건(-1.49%), BOA(-2.46%)는 물론 마스터카드(-2.50%), 비자카드(-1.28%) 등 신용카드 업종 또한 관련 우려로 부진. 모더나(-4.36%), 바이오엔테크(-2.97%)등 백신 업종은 모더나 CEO가 기존의 백신이 오미크론 예방에 영향이 적다고 주장하자 하락. 다만 추가 백신 접종 기대 심리가 부각되며 낙폭이 축소 되었으며 화이자(+2.54%)와 노바백스(+7.56%)의 경우 상승하는 힘을 보임. 특히 바이오엔테크 CEO가 백신 접종이 오미크론으로 인한 중증 질환으로의 진전을 막는다고 주장한 점이 영향

테슬라(+0.68%)는 전일 미국 교통부장관이 전기차를 구매해 가솔린 가격 변화를 맞으라고 주장하자 한 때 3% 가까이 상승했으나,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변동성 확대. 니오(-3.29%), 루시드(-3.78%), 리비안(-0.01%) 등도 장 초반 상승을 뒤로 하고 하락. 그러나 샤오펑(+7.09%)은 주 후반 중국의 전기차 판매 실적 발표 앞두고 기대 심리 부각되며 상승. 겅(-7.13%), 언더아머(-3.28%) 등은 사상 처음으로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판매가 전년 대비 감소 했다는 소식에 하락. 메타플랫폼(-4.01%)은 영국 경쟁 감시 단체가 페이스북이 작년에 인수한 GIF 공유 플랫폼 Giphy를 매각해야 한다고 발표하자 하락. 태양광 업체인 솔라엠티(-5.60%)는 투자자의 하향 조정으로 징코솔라(-6.63%)는 분기 매출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소식에 급락. 애플(+3.16%)은 아이폰 출시량이 서유럽에서 33% 급증했다는 소식에 상승. 삼성전자, 아마존의 패드 출하는 크게 감소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2.64	대형 가치주 ETF (IVE)	-2.36
에너지섹터 ETF (OIH)	-2.86	중형 가치주 ETF (IWS)	-2.81
소매업체 ETF (XLY)	-1.35	소형 가치주 ETF (IWN)	-2.28
온라인소매 ETF (EBIZ)	-2.87	대형 성장주 ETF (VUG)	-1.41
금융섹터 ETF (XLF)	-2.39	중형 성장주 ETF (IWP)	-2.35
기술섹터 ETF (XLK)	-0.83	소형 성장주 ETF (IWO)	-1.62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1.47	배당주 ETF (DVY)	-2.65
클라우드 ETF (CLOU)	-2.03	신흥국 고배당 ETF (DEM)	+0.05
미국 리츠 ETF (VNQ)	-1.89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0.05
주택건설업체 ETF (XHB)	-2.49	미국 국채 ETF (IEF)	+0.60
바이오섹터 ETF (IBB)	-1.18	하이일드 ETF (JNK)	-0.45
헬스케어 ETF (XLV)	-1.96	물가연동채 ETF (TIP)	+0.09
곡물 ETF (DBA)	-1.93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22
반도체 ETF (SMH)	-2.09	모멘텀 ETF (MTUM)	-2.52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IT	2,956.85	-0.96	-0.49	+4.31
경기소비재	1,615.83	-1.42	-2.92	+0.44
헬스케어	1,510.45	-1.93	-1.95	-3.00
부동산	295.94	-2.12	-1.18	-1.17
금융	630.37	-2.41	-4.06	-5.87
소재	530.68	-2.48	-4.36	-0.92
에너지	410.55	-2.53	-2.11	-7.35
산업재	850.54	-2.55	-4.95	-4.00
필수소비재	731.76	-2.73	-3.20	-1.34
유틸리티	332.59	-2.92	-2.94	-2.52
커뮤니케이션	260.90	-3.00	-3.91	-4.54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보험 출발 후 반발 매수 유입 기대

MSCI 한국 지수 ETF는 0.84%, MSCI 신흥 지수 ETF는 0.10%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183.25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37% 상승. KOSPI는 보험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모더나 CEO가 기존 백신의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자 매물 출회되며 하락. 특히 기업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고 매파적인 연준의 움직임 등 본질적인 체력이 약화된 가운데 모더나 CEO의 발언은 매물을 촉발시키며 낙폭을 키웠다고 볼 수 있음. 이 여파로 외국인인 현/선물을 순매도하는 등 수급적인 요인도 부담을 줘 KOSPI가 2.42% 하락

이런 가운데 미 증시는 파월 연준의장이 인플레이션 전망 관련 ‘일시적’이라는 시각에서 한 발 물러선 가운데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는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주장하자 하락. 특히 나스닥이 장중 한 때 2% 넘게 급락하는 등 투자심리가 위축. 그렇지만, 오미크론 관련해 남아공의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바이오엔테크 CEO가 백신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자 낙폭이 축소되며 마감 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물론 매파적인 연준의 움직임과 국제유가 급락 등은 외국인의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 심리 또한 높다는 점을 감안 한국 증시의 강세 기대를 높임. 더 나아가 애플이 아이패드 판매 급증 등으로 미 증시 부진 불구 상승한 점, 미 교통부 장관이 전기차 구입 촉구 등을 언급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관련 부품 업종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미 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보험권 출발 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물론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둔화, 매파적인 연준의 움직임, 오미크론의 유럽 확산 등을 감안할 때 상승폭이 크게 확대될 개연성은 높지 않아 제한적인 강세 속 일부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둔화

미국 11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난달 발표(111.6)나 예상(110.7)을 하회한 109.5로 발표. 현재 상황 지수는 145.5에서 142.5로, 기대 지수도 89.0에서 87.6으로 둔화. 한편, 구직 어려움이 11.0%에서 11.1%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풍부한 일자리는 54.8%에서 58.0%로 개선되어 일자리 격차는 43.8%p에서 46.9%p로 높아져 고용 개선 기대 심리가 높아짐

미국 11월 시카고 PMI는 지난달 발표나 예상치인 68.4 보다 둔화된 61.8을 기록. 신규주문이 67.5에서 58.2로 둔화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다만 생산지수가 58.5에서 61.5로, 재고지수도 51.1에서 59.6으로 개선된 점은 특징

미국 9월 FHFA 주택가격지수는 지난달 대비 0.9% 상승에 그쳐 예상(mom +1.0%)을 하회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국제유가, 수요 둔화 우려로 하락

국제유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 물론 OPEC+ 회담을 앞두고 사우디와 러시아 등에서 추가 감산 축소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원유시장 참여자들의 패닉셀을 막지는 못함. 특히 오미크론 이슈가 부각돼도 OPEC+ 국가들의 감산 축소 중단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

달러화는 오미크론 우려가 높아지자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이기도 했음. 그러나 파월 연준의장이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는 점을 논의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전망에서 일시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매파적인 발언을 하자 급격하게 달러화 약세폭이 축소

국제금리는 모더나 CEO가 기존의 백신이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자 시간 외로 10년물 기준 10bp 이상 급락. 최근 매파적인 연준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그러나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는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매파적인 발언을 하자 금리 낙폭이 급격하게 축소. 특히 단기물의 경우 상승 전환하는 등 변동성이 컸음

금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상승 하기도 했으나, 파월 연준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하락 마감. 구리 및 비철금속은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하락. 곡물은 남미에 비가 내리자 작황에 우호적이라며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곡물 시장 또한 하락 요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부진.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14%, 철근은 1.13%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6.18	-5.39	-13.77	Dollar Index	95.872	-0.49	-0.64
브렌트유	69.23	-5.45	-14.88	EUR/USD	1.1338	+0.42	+0.80
천연가스	4.61	-5.07	-3.78	USD/JPY	113.06	-0.41	-1.81
금	1,776.50	-0.49	-1.80	GBP/USD	1.3297	-0.14	-0.61
은	22.82	-0.16	-6.35	USD/CHF	0.9182	-0.54	-1.58
알루미늄	2,625.00	-0.19	-1.63	AUD/USD	0.7126	-0.24	-1.41
전기동	9,442.50	-1.41	-2.76	USD/CAD	1.2784	+0.34	+0.90
아연	3,200.50	+0.08	-3.04	RUB/USD	0.0135	+0.75	+0.37
옥수수	567.50	-2.53	-2.87	USD/BRL	5.6237	+0.28	+0.59
밀	787.25	-4.26	-8.19	USD/CNH	6.3652	-0.33	-0.41
대두	1,217.25	-1.95	-4.47	USD/KRW	1,187.90	-0.43	-0.15
커피	232.30	-0.30	+0.43	USD/KRW NDF1M	1,183.25	-0.69	-0.65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446	-5.27	-21.91	스페인	0.397	-2.30	-11.40
한국	2.204	-6.60	-19.60	포르투갈	0.327	-2.00	-10.90
일본	0.057	-1.90	-1.80	그리스	1.245	-3.80	-5.40
독일	-0.349	-3.20	-12.90	이탈리아	0.968	-0.80	-9.2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